

<2018년 8월 26일 주일말씀>

환난과 고난 후에 영광

본 문 누가복음 17장 25절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바 되어야 할지니라』

누가복음 24장 26절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시대>에 대해 말해 주고,
그리고 <우리가 현실에서 어떻게 가고 있는지>도
알려 주겠습니다.

1. <지금>은 늘 ‘잔칫집 역사’ 다. 그야말로 ‘영광의 시대요, 기쁨의 시대요, 얼굴과 얼굴을 맞대는 시대’로 뒤바뀌었다. - 이것은 그냥 된 것이 아니다. 20여 년 동안 고난과 어려움을 겪은 가운데 된 것이다.
2. <환난과 고난 후의 영광>이다.
3. <하나님이 보낸 자> 역시 환난과 고난 후에 영광에 들어간다.

4. 성경에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그 시대에게 버린바 될 것이다.” 했다. 그 말씀대로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보낸 자는 시대에게 버린바 되었다. 어디까지 버렸는가 하니, 최고 죄인들만 사는 곳에 버린바 되었다.
5. <환난과 고난>은 선지자 때도, 사사 때도, 중심인물 모세나 다윗 때도 받았고, 그리스도는 가장 큰 고난을 받았다. 지구상의 최고 영광의 사명에 해당되는 만큼, 고난을 받는다.
6. <예수님>은 그 고난을 ‘죽음’ 으로까지 받았다. <육신이 죽는 고난>으로 버린바 되었다. 그러나 영으로, 곧 ‘영적인 세계’ 에서 승리하시고, 메시아로서 2000년 동안 영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펴 왔다.
7. 2000년 역사 동안의 희망은 “<예수님>이 영광으로 다시 오셔서 역사를 펴신다.” 함이었다. 그런데 그들이 기다리는 대로 안 왔다. <새로운 시대>이니, ‘새로운 사람’ 이 온다.
8. 어느 시대든지 하나님이 보낸 구원자는 <하늘>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땅’ 에서 온다.
9. 신약 때 예수님은 아예 그 육신이 죽음으로 버림을 받은바 되었지만, 하나님은 또 하나님의 역사를 하신다. 그리고 “다시 오리라.” 한 약속대로 하나님은 ‘땅에서 한 사람’ 을 보내시어 역사하신다.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다.

10. <때>가 되어 하나님은 새 시대에 ‘한 사람’을 보냈으나, 시대가 무지한 고로 그 역시 ‘버린바’ 되었다. 너무도 엄청난 고난과 어려움을 받으며 끌려 다니고, 칼을 차고 다니면서 틈만 나면 해하려고 하는 역경 속에서 버림받은 바 되었다. 이런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것은 인간이 무지해서 그러하다.
11. <예수님 때>도 그러했다. 하나님은 “구원자를 보내서 구원해 주리라.”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예수님을 보내셨으나, <기다리던 자들>은 적나라하게 예수님을 멸시하고 배신해 버렸다.
12. <이 시대>도 하나님은 약속대로 구원자를 보내셨으나, 세상이 버리고, 배신하고, 악평하고, 짐승같이 대했다. 그런 환난과 어려움이 있었어도, 늘 변함없이 하나님을 모시고 사랑하며 왔다. 섭리사를 나간 자들이 별말을 다 했어도, 낙심하지 않고 ‘내가 누군지 몰라서 그렇다.’ 했다. 시대 선고를 받고 가면서도, 그 때도 변함없이 주를 좋아하고 따르는 자들의 모습을 생각하며 <나는 행복하다> 노래도 지어 불렀다.
13. 많은 어려움과 고통이 있어도, 결혼하면 ‘남편’이 있으니 서로 사랑하고 좋아하며 살듯이 <시대 선고를 받았을 때>도 서로 사랑하면 되니, 걱정 없다고 했다. 그때 시대 선고를 받고서 성자에게 “나 사랑해요?” 하니, 성자는 내가 숨을 못 쉬게 만들면서 “어떻게 그런 말을 하느냐.” 고 하셨다. 그 말을 듣고, 그러면 10년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다. 그리고 ‘내가 사랑하면 끝나는데, 그까짓 환난이 문제야? 십자가가 문제야? 고통이 문제야? 혼자 있으니까 개인으로 하나님도 성령님도 성자도 만나

고 너무 좋다.’ 했다.

14. 성자는 그때 내게 말씀하시기를, “나도 네 육신을 쓰고, 너와 같이 십자가를 진다. 둘이 재미있게 시대 역사를 감당하고, 뜻을 펴고 가자. 내가 너를 지극히 사랑한다.” 하셨다. 그리고 또 말씀하시기를, “밖에서는 네 몸이 된 자가 성령 역사를 해 나가니 걱정 말아라. 따르는 자들이 다 나가지도 않고, 너와 같이 고난의 길을 간다.” 했다.
15. 성령님도 내게 말씀하시기를, “이 10년의 시간을 귀히 사용하라. 개인으로 만나는 것은 너무 어렵다. 네가 죽을 때까지 1m 밖을 벗어나지 않고 네 옆에 있겠다.” 하셨다. 그리고 내게 약속하시며 비밀을 가르쳐 주시기를, “너 때문에 내가 세상에 왔다. 그래서 네가 떠나면 나도 하늘나라로 간다. 가는 날은 똑같다.” 하셨다.
16. 환난과 어려움을 겪고, 시대에게 버림을 받아도 행복했다. 왜? <간판>이 있기 때문이다. 이 <간판>은 세상 어느 누구도 갖지 못한 간판이다. 성자는 이 간판을 내게 주시며, “지구 세상의 마지막 간판이다.” 하셨다. 그때를 생각하며 늘 기뻐하고 좋아하며 하나님을 섬겼다.
17. 환난 때도 변함없이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를 사랑하고,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사랑했다. 그리고 예수님도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사랑하고 좋아했다. 그러니 예수님이 “넌 남자인데 나 좀 생각해 줘라.” 할 정도였다. 그렇게도 좋아하고 사

랑하며 했다.

18. <그리스도>는 고난과 환난을 받은 후에 영광에 들어간다. <시대 하와>도 그러하다.
19. 사명이 큰 만큼 환난과 역경을 받는다. 그것은 다 이야기를 하려고 해도, 못 할 정도다.
20. <선생이 없을 때>, 시대 하와도 이런저런 환난과 역경을 받고, 버림을 받고 때림을 받았다. 그러나 환난을 이기고 진리의 말씀을 퍼부어 주며 뜨거운 성령 역사를 일으켰다. 성령의 불에 뼈가 녹을 정도로 뜨겁게 주를 증거하고 외쳤다.이같이 했기에 <역사>가 살아서 움직이고, <따르는 자들>도 ‘진리의 말씀’과 ‘성령의 불’을 받아 열심히 뛰고 달릴 수 있었다.
21. 그동안 섭리사는 민족적으로 환난과 고통이 사정없이 쏟아졌다. 그러니 따르는 자들도 각종 환난과 어려움, 고통을 다 받았다. 그래도 겸손하게 그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전도도 하고, 환난과 어려움에 쓰러진 자를 붙잡아 주면서 왔다.
22. 민족이 막고, 각양각색으로 심하게 막으니, <주>는 하나님께 고할 수밖에 없다. 결국 하나님은 <사명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행한 대로 갚아 주고 계신다. 우리가 이겼기 때문이다. 안 이겼으면, 하나님도 갚아 주지 않으셨을 것이다.
23. 남편은 누가 자기 부인에게 손을 대면 그냥 있지를 않는다. 특

히 성자는 “너를 건들면 내 가만히 있지 않는다.” 하시며, 상상도 못 하게 세계를 흔들어 버리셨다. 결국 행한 대로 받고 다 끝났다.

24. 환난과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주>는 하나님이 이 시대에 하실 일과 버린 자들이 해야 될 일까지 다 해 주고 왔다. 첫째, 나님의 최고 창조 목적을 이루고, <신부로 변화된 영들>을 황금성 천국으로 휴거시켰다. 하나님은 자신을 절대 사랑하고, 육일생 동안, 영 영원히 변함없이 사랑하며 살라고 우주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그 목적을 이룬 것이다. 둘째, 140권 분량의 책을 쓰고, 5만 잠언을 쓰고, 그리고 기도해서 해야 될 일들까지 다 했다. 셋째, <월명동 자연성전, 하나님의 궁>도 모두 하나님의 구상으로 만들어 놓았다. 넷째, 그 좁은 관 같은 곳에 살았어도, 운동하고 뛰고 달려서 건강하게 나왔다. 다섯째, <주>가 가는 나라마다 버렸어도, 복음을 넣어 주고 할 일을 다 했더니, 이제는 각 나라에서 말씀을 듣고 깨달은 자들이 따라온다. 결국 하나님께서 씨를 뿌린 후에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셨다.

25.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고난이 끝났으니, 이제는 <영광의 세계>에 들어가자.” 하셨다.

26.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받았어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맡기신 일들을 해 나가며 끝까지 하니, 결국 살아나서 모두 ‘영광의 역사’를 맞게 되었다.

27. 하나님은 많은 버림을 받고, 불신을 당하고, 종교 전쟁과 각종

쓰라린 일들을 당하시면서 6000년간 역사해 오시다가 이때,
〈마지막 영광의 역사, 일주일 중에 일요일 같은 역사, 1000년
혼인 잔치 역사〉를 맞게 된 것이다.

28. 환난과 역경 가운데 끝끝내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지금까지 와서
살았으니, 하나님도 “기쁘다.” 말씀하신다.

29. 이 시대가 〈영광으로 나타나는 시대〉가 됐으니, 이제 모두 멋
있게 살아야 한다.

30. 지금은 〈부활의 역사〉의 때다.

31. 모든 사람들이 이제 영광 받고 누리는 것이 남았으니 낙심치 말
고,〈부활〉도 다 완전하게 해야 된다. 그리고 이미 〈부활된 사
람〉은 부지런히 영광도 받고, 계속 열심히 해야 된다.